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용어의 문제

북한 이탈 주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법률적인 용어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새터민이 있다. 새터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200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우리말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인 2011년 말에 새터민 대신 북한 이탈 주민을 공식 용어로 사용할 것을 공표하였다. 그 결과 요즘 국가 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줄여서 탈북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 이탈 주민 자신들은 새터민이라는 용어보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편이라고 반응한다. 그러나 두 용어는 관점이 다르다고 본다. 새터민은 정착에 초점이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은 탈북에 초점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자신들을 실향민으로 불러 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북한 출신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한 출신 주민과 짝을 이루어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과 같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할 예산 확보가 되고,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구분 짓는 용어의 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어의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2.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은 200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14년 10월말 현재 2만 7천여 명¹⁾에 달하고 있다. 2011년을 정점으로 북한 내부 변화에 따른 북한 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그 증가 속도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1,500명 정도 꾸준히 남한에 입국하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제3국에 체류하면서 남한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남한 사회 정착은 개인의 문제를

1) 북한 이탈 주민 입국 현황('14년 10월 말 입국자 기준) (단위: 명)

구분	'98 까지	'01 까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10 (잠정)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235	8,182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896	19,071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131	27,25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9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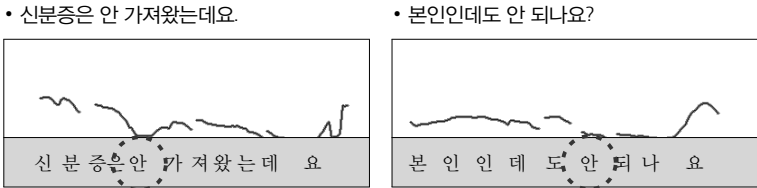
통일부 통계자료, 「북한이탈주민정책」 참고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18>

넘어 남한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까지 나서고 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분단 70여 년을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 이탈 주민들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 어려움 중 하나가 언어 차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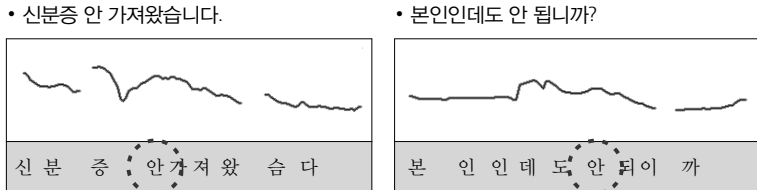
현재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대다수는 함경북도 출신이다. 함경북도 말은 성조 방언이라고 해서 남한으로 말하자면 경상도 방언처럼 높낮이가 심한 편이다. 전체적으로 억양이 두드러지고 남한 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디만 해도 북한에서 온 게 바로 표시가 난다.

예를 들면, [그림 1]과 같이 남한에서는 ‘안’ 부정어가 들어간 표현을 말할 때 말토막의 첫음절은 보통 낮게 발음하므로 부정어 부분의 억양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은 ‘안’ 부정어가 들어간 표현을 말할 때 부정어 부분의 억양을 높고 세게 발음한다 (권순희 외, 2012:243).

[그림 1] 표준어 구사자의 부정어 ‘안’의 억양



[그림 2] 북한 이탈 주민의 부정어 ‘안’의 억양



음식이나 음료를 권하는 남한 사람의 권유에 거절을 하려고 “안 먹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이 부정어를 높게 발음하면 남한 사람들은 이를 공손하지 않은 표현으로 받아들여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음 역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언감자’를 ‘온감자’라고 발음한다. 북한의 ‘어’가 원순화되면 우리말의 ‘오’와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으’가 원순화되어 ‘우’처럼 들린다. ‘꿀’을 ‘꿀’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억양과 발음을 표준어로 교정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어휘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히 수많은 외래어와 외국어, 한자어, 신조어는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생활에 많은 부담을 준다.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등을 통해 전문 어휘 및 학습 어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용상의 차이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언어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언어의 차이로 생각되지만 핵심으로 들어가면 사회 체제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 차이에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은 대부분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남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하며, 북한을 탈출했을 때 생각했던 목표와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실과의 괴리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3. 남북 언어 차이 사례

북한 이탈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방송 <반갑습네다>(CGNTV) 중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을 분석한 결과에 토대를 두어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3.1. 일상 어휘 차이

언어 차이 중에서 특히 어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일차적으로 대화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표면적인 것이다. 그 양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사례가 있다.

(예 1) 북한에서는 달력 보기가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렇게 번지는 것은 더
욱더 어려웠어요.(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2) 달력 중 이렇게 특별히 번지는 것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반갑습네
다, 30편 특별한 외로움, 2011년 11월 25일)

(예 3) 학습장을 번져가던 룡호의 입은 대변에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쓰려는
것과 똑같은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국어 소학교 3, 143쪽)

(예 1), (예 2), (예 3)에서 ‘번지다’는 ‘넘기다’의 뜻이다.

(예4) 공장들에서의 생산 체계의 정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반갑습네다, 39
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5) 항일유격대가 남만원정준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던 어느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철주동생으로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몹시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시였다.(국어 중학교 1, 87쪽)

(예 4), (예 5)에서 북한어의 ‘다그치다’는 ‘힘쓰고 있다’는 의미로 부정적 의미가 없다.

둘째, 사용하는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 이해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6) 2월 16일은 휴식일이지만 국가 행사에는 참여하여야 한다.(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7) 오락회 시간(반갑습네다, 13편 북한의 대중문화, 2011년 7월 22일)

(예 8) 북한에서 4월 4일은 식수절이라고 해서 나무를 심는다.(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9) 농산기구로 쓰기 때문에(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6)의 휴식일은 휴일로, (예 7)의 오락회 시간은 오락 시간으로, (예 8)의 식수절은 식목일로, (예 9)의 농산 기구는 농기구로 뜻풀이 예 측이 가능하다.

셋째, 한자어의 조어나 사용 형태가 상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 10) 저는 너무 너무 궁직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11) 할 수 있다고 하는 궁정심을(반갑습네다, 37편 2012년 북한의 절기, 2012년 1월 13일)

(예 12) 저는 북한에서 보면은 항상 그 민족의 언어를 고유적인 것들을 보유하고 싶고 지켜 내고 싶은(반갑습네다, 12편 교육 무엇을 배우나, 2011년 7월 15일)

(예 10)의 ‘긍직스럽게 생각하고’라는 표현은 남한에서는 ‘긍지를 갖게 되고’로 표현된다. ‘긍정심’은 ‘긍정의 마음으로’, ‘고유적인’은 ‘고유한’으로 대응되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남한에서는 십이개월(12개월)이라고 숫자를 읽지만, 북한에서는 열두 개월로 읽는다. 일 킬로그램, 이 킬로그램, 십 킬로그램 등의 표현을 북한에서는 한 키로, 두 키로, 열 키로 등으로 표현한다. 또한 105를 말할 때 백공다섯이라고 표현한다.

(예 13) 한국에서는 육칠십 키로가 아니라 한 열 키로만 지고 가도 힘들더라
구요.(반갑습네다, 7편 탈북목회자협회 김태진 선교국장, 2011년 5월 27일)

(예 14) 지금 저는 스무 키로 지고 가라하면 아마 무겁다고 버릴 거예요.(반
갑습네다, 7편 탈북목회자협회 김태진 선교국장, 2011년 5월 27일)

(예 15) 백공다섯 살(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넷째, 한자어의 앞뒤 순서가 바뀐 사례가 있다.

(예 16) 래왕이 되기 때문에(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17) 대상했기 때문에 괜찮지만(반갑습네다, 30편 특별한 외로움, 2011년 11월 25일)

(예 18) 한글을 세종대왕이 제창하셨다는 것을 한에서는 배운 적이 없다.(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 19) 호상비판

(예 16)~(예 19)와 같이 ‘래왕’은 ‘왕래’, ‘대상’은 ‘상대’, ‘제창’은 ‘창제’, ‘호상’은 ‘상호’와 대응을 이룬다.

다섯째,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북한에서만 특수하게 사용하는 어휘가 있다.

(예 20) 혹시 뭐 주패, 화투? 혹시 장기(반갑습네다, 13편 북한의 대중문화, 2011년 7월 22일)

(예 21) 고난의 행군 이후에 돈을 벌 수 있으면은요. 장마당에서 돼지고기도 사 먹고(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22) 북한에서는 어지간하면 엇서지 않으려고 합니다.(반갑습네다, 28편 생활 총화란 무엇일까? 2011년 11월 11일)

‘주패’는 ‘카드’를 의미하며, ‘장마당’은 ‘시장’을 의미한다. ‘엇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표현은 ‘맞서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섯째, 북한에는 없는 어휘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서 처음 듣게 되었다는 어휘가 있다.

(예 23) 서양식 음식 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예 24) 식당에서 몰랐다. 티슈, 글라스(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 (예 25) 범람했다. 이 말을 모르겠더라.(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 (예 26) 홍수 모르겠더라 북에서는 큰물이라고(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 (예 27) 하나원에서 교육생들에게 남한에서는 아이들 함부로 만지지 말고 특히 남성들은 ‘변태’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변태’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명태가 변해서 변태가 되는가 생각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17회 탈북미녀 특집 제1탄, 2012년 3월 24일)

(예 23)~(예 27)에서 제시하는 서양식, 티슈, 글라스, 범람, 홍수, 변태 등의 어휘는 남한에서 처음 알게 된 어휘라고 북한 이탈 주민은 증언하고 있다. 그밖에도 문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예 28) 된장 맛이가 콩으로 하는 거보다 엄청 맛이 없죠.(반갑습네다, 22편 남북한 음식의 차이, 2011년 9월 30일)
- (예 28-1) 우리 분대 전사 월급이가(반갑습네다, 31편 북한 군대 옛보기, 2011년 12월 22일)
- (예 28-2) 결혼 날짜를 정할 때는 여자 쪽이 권한이가 세거든요.(반갑습네다, 21편 북한의 연애와 결혼, 2011년 9월 23일)
- (예 29) 근데 저희 집에서 지금 가끔씩 저 동생이나 저나 이제 어머니를 제가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반갑습네다, 12편 교육 무엇을 배우나, 2011년 7월 15일)
- (예 30)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그분들한테 털어 안 놓게 되고(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 30-1) 뭔가 도와 안 주고(반갑습네다, 7편 탈북목회자협회 김태진 선교국장, 2011년 5월 27일)

(예 31) 알아 못 들겠습네다.

(예 31-1) 들어 못 가서 전화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 31-2) 알아 못 듣는 언어에 대해서 바로바로 물어봤을 때(반갑습네다, 39편 남남북녀의 꿈, 2012년 1월 27일)

(예 28)과 같이 주격 조사에서 ‘이’와 ‘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제와 저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 이탈 주민은 (예 29)처럼 ‘제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저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 30)과 (예 31)처럼 부정어 ‘안’과 ‘못’의 위치가 남한과는 달리 용언 뒤에 옴으로써 위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어휘나 문법의 차이는 어쩌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남북 언어 차이로 인해 남북한 사람이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접사 ‘질2’)의 경우 사전을 찾아보면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한에서 어떤 직업 뒤에 ‘질’을 붙이면 그 직업을 비하하는

2)- 질11 「접사」

1. (도구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가위질, 망치질, 결레질 등
2.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떤 행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결눈질, 손가락질, 주먹질, 등
3.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선생질, 목사질 등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주로 좋지 않은 행위에 비하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계집질, 노름질, 서방질, 싸움질 등 (표준국어대사전)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한 일반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탈북 청소년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은 탈북 학생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진로 상담 도중 꿈이 뭐냐는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선생질을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학생의 말을 듣고 그동안 가졌던 두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이 사용하는 ‘밀다’와 남한 사람이 사용하는 ‘밀다’의 차이로 인해 감옥까지 갈 뻔한 북한 이탈 주민의 사연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북한 이탈 주민 A는 주차 문제로 인해 노인 B와 실랑이를 하게 됐다. 당시 B는 만취한 상태에서 A의 목살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A가 B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가 실수로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B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만취로 인해 술이 깰 때까지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이내 사망하고 말았다. A는 경찰서에서 “당신이 B를 밀었습니까?”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나중에 남한에서는 ‘밀다’와 ‘뿌리치다’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안 A는 재판 과정에서 B를 밀 것이 아니라 뿌리친 것이라고 다시 진술했었다. 함경도가 고향인 A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밀다’를 ‘뿌리치다’는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밀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하였다(강보선, 2013:146 참고).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어휘 차이는 단순히 남한 정착의 어려움을 넘어 인간관계 갈등과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어휘 차이에 대한 연구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교재 개발에서도 단순한 어휘 차이 소개를 뛰어넘어 언어문화적 차이, 화용적 차이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2. 간접 화행, 직접 화행의 차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휘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대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대화뿐만 아니라 도서나 드라마 등을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발화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 전달, 즉 메시지의 포인트가 메시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발화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메시지 자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W대학교 석사과정인 북한 이탈 주민 L의 증언)

예를 들면 남한의 경우 회사에서 상사가 “덥지 않아요?”라고 발화를 했을 때 그 발화를 들은 일반 회사원의 경우 대부분 상사의 ‘더위’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창문을 열거나, 에어컨을 트는 행동을 하거나, ‘창문을 열까요?’ 혹은 ‘에어컨을 켤까요?’ 등의 발화를 한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는 ‘덥지 않아요?’라는 발화에 대한 답으로 본인 더울 경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덥지 않습니다.”로 발화를 한다. 이는 메시지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발화 수반 행위나 발화 효과 행위를 해석의 범주로 넣느냐에 따라 청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를 나눠 본 남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을 가리켜 직설적인 발화를 많이 한다고 말한다. 반대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남한 사람은 말을 지나치게 돌려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응한다. 북한의 정서 자체가 선전 선동이 깊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화는 직설적일 수밖에 없다. 즉, 직접 화행이 발달하였다. 반면 남한의 경우 인구 이동이 잦고,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인 발화가 발달하였다. 즉, 간접 화행이 발달하였다. 예를 들어 남

한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식의 인사말을 자주 한다. 이는 식사 약속을 하겠다는 말이 기보다는 지나가는 친근감의 표시이다.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언제 밥 한번 먹어요.’라는 남한 사람의 말을 식사 약속과 같은 직접적인 말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지만 상대방의 연락이 없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연락드릴게요.’라는 사장의 말을 듣고 ‘연락’을 기다리다 한 달 늦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남한의 간접 화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화로 입국 초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대화가 너무 직설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머리 모양을 바꾼 한 여대생이 북한 이탈 대학생인 A에게 ‘나 머리 어때?’라고 물었을 때 남한 사람은 ‘괜찮아’, 혹은 ‘예뻐’, ‘잘 어울린다’ 등의 긍정적인 발화를 많이 하는 반면,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표현한다.³⁾ 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발화를 들은 남한 사람은 종종 오해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날 기회가 적은 남한 사람의 경우는 간혹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분명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⁴⁾하는 반면 남한은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공격적이

3) 또 다른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 H씨는 남한에 와서 대학교을 다닐 때 남한 친구가 치마를 오래간만에 입고 왔는데, “너 다리 굵다.”라고 말하여 남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진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본인은 사실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4) 남한 사람 중에도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느낀다. 즉 남한 사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북한식 감정 표현 방식은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반면 북한 사회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남한식 의사소통 방식은 불분명하고 가식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분명하고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상호 비판 문화가 강한 북한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의 직설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요청 표현이나 거절 표현에서 간접 화행을 주로 사용하는 남한 사람들에게 거칠다고 인식 되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은 상호 칭찬보다는 비판에 익숙하다고 한다. 조용관(2004)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 때부터 자아비판이나 상호 비판 및 생활 총화 등을 통해 남을 칭찬, 격려하기보다는 비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 조용관(2004)은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바로 상대방을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 이탈 주민끼리 상호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 결과 외모나 소지품, 사소한 일이나 도움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경향이 있는 남한 사람을 대하면 북한 이탈 주민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한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은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조용관(2004)은 북한 이탈 주민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비난을 받으면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것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것도 북한 체제에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은 특히 직장 생활 등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사람 사이에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3. 언어 어감도에 따른 차이

언어 어감도의 문제도 인간관계 단절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예 32)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북한 이탈 주민인 A와 B의 대화 내용⁵⁾이다.

(예 32)

B: 제 머리 어때요?

A: 예구! 니 머리 새쓰개 같다. 왜 돈 주고 머리 그 모양으로 만들었니…….

B: 진짜요? 하긴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머리가 요즘 한국에서는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다른 상황에서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남한 남성이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화를 냈던 부분이다.

(예 33) ○○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어떻게 남편인 날 보고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어?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남편한테 정신병자라니, 그렇게 말하고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웃고 있더라. 정말 황당했어.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결혼한 남편의 말 중에서).

(예 32)에서 ‘새쓰개’는 ‘정신병자’와 같은 말이다. (예 32)에서 ‘새쓰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같은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이다. 직설적인 발화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화자들이고, 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질 집단 내에서

5) 이화여대 석사과정 대학원생 이경화가 수업 시간에 발표한 사례이다.

‘새쓰개’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경우이다. ‘정신병자’라는 표현도 이 표현을 흔히 사용하는 함경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예 33)은 같은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정신병자’를 남한 남편에게 사용함으로써 남편이 크게 노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동일한 북한 이탈 주민 여성이 (예 32)와 (예 33)을 같은 상황이라고 인지하는 반면, 남한 남편은 (예 33)에서처럼 ‘정신병자’라는 말에 대한 어감도 차이로 이 표현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곤란한 어휘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남한 사람이 북한 이탈 주민의 발화에서 ‘정신병자’라는 어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감정은 상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북한 이탈 주민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 없다, 일 없습니다.’의 경우 남한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습니다.’와 같은 어휘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일 없다’를 언급할 경우 남한 사람은 그 발화에 대한 어감도가 부정에서 긍정에 가깝게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할지 모르지만 부정적 어감은 희석되고 있다고 반응할 것이다.

‘소행’이라는 어휘 역시 어감도가 다르다. 북한에서는 ‘소행’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둘 다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더 많다.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올바른 소행’, ‘착한 소행이다’, ‘소행상을 타다’ 등의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이게 누구 소행이지?”라고 하면 착한 일을 하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이탈 주민 여성과 남한의 남성이 혼인한 경우 남한의 남성이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말을 막 한다.’ 혹은 ‘말을 너무 심

하게 한다.’ 등의 반응을 많이 보인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서는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정작 그 발화가 ‘심한 말, 혹은 막말’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북한이 혁명과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투쟁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남한은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북한의 경우는 적군을 지칭할 때 ‘원수’, ‘놈’이라는 표현만 쓰는 것에 비해 남한은 ‘적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원수’, ‘놈’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다. 또한 남한에서는 생선이나 동물들의 두(頭)를 가리켜 ‘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북한에서는 무조건 ‘대가리’로 표현한다. 그 뿐만 아니라 ‘모가지’, ‘대갈통’, ‘병신’, ‘늪으대기’ 등의 어휘를 북한에서는 자주 사용⁶⁾하지만, 남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 이탈 주민의 발화에서 이러한 어휘들이 섞여 나오고 청자가 남한 사람이라면, 이 어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대화는 단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사람의 언어 어감도에 따른 문제는 어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저속한 말로 취급하여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북한 이탈 주민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들은 남한 사람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북한 이탈 주민은 그 결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기도 한다.

6) 북한에서는 일상 사회생활 과정에 주고받는 말에도 경멸, 증오적인 표현들을 골라 써서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을 미워하고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노동 계급적 입장을 튼튼히 지키며 견결한 투쟁 정신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말에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경멸, 증오, 야유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골라 써야 한다고 하였다(강보선, 2014).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조선말례절법》에 소개되고 있다(김동수, 1983:193~200).

4. 국어 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언어 차이는 이들을 자신의 정체성까지 숨기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의 표준어와 일상 언어들에 익숙해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 점은 많은 연구자가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을 생각한다면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의 언어를 교육 받는 만큼은 아니지만 남한 사람도 북한의 언어에 접하고 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동화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상호 언어문화 이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북한 이탈 주민의 교육 지원은 탈북민의 언어 교정 차원 및 학습 지원 차원의 교재 개발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도 당장 필요한 지원이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심리 치유, 평생 교육, 남북통일 대비 차원, 통일 이후 정책 차원에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호 언어문화 이해 차원에서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어를 이해시키는 일과 북한 이탈 주민에게 남한어를 이해시키는 일 두 가지를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에게 표준어를 교육하는 것은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 말을 버려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회 생활을 할 때 표준어를 말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어 교육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한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

다. 소수자의 원어 권리 차원에서 볼 때 북한어를 사용하는 북한 이탈 주민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 학계나 일상생활에서도 방언에 대한 위상이 달라졌다.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느끼고, 이로 인해 보다 친밀감을 갖는 기능이 있으며, 고유어가 방언에 살아 있어서 방언을 문화유산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북한어 역시 소중한 언어 자원으로 봐야 한다.

둘째, 북한 이탈 주민이 사용하는 북한어 표현을 남한 사람들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의 발음과 억양에 남한 사람이 익숙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수용하려는 태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발음과 억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발음과 억양 뿐만 아니라 북한에만 특수하게 있는 언어 표현도 수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는 화행 표현을 기술한 자료나 문화 차이를 기술한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그동안에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책자형 교재가 개발되었다. 동영상, 앱 등 다양한 형태의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일상생활 어휘뿐 아니라 전문 어휘, 직장 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학습 어휘를 비롯하여 현행 교과서 보충 교재 및 통일 대비 교과서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보선(2013),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 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 강보선(2014), 남북 의사소통을 위한 높임법의 차이 비교, 《화법연구》 26, 한국 화법학회.
- 권순희 외(2012), 《새터민 구어학습용 교육 자료 개발》, 국립국어원.
- 권순희·양수경(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한국어교육 연구》 28, 국어교육학회.
- 김동수(1983), 《조선말례절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승룡 외(2009), 《국어 소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 신명선 외(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국립국어원.
- 전장길 외(2004), 《국어 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 조용관(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 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2, 한국정치외교사학회.